

국립현대미술관 제 18회 《젊은모색 2014》 전 개최

- ◇ 33년간 이어져온 국립현대미술관 대표 정례전
- 1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서 열려
- ◇ 신진 작가들의 실험정신과 독창적인 작품 소개, 약 40여점 선보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직무대리 윤남순)은 신진 작가들의 실험정신과 독창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젊은모색 2014》 전을 1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과천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에는 회화, 한국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각 분야의 작가 8명이 최종 선정되어 약 40여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젊은모색’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의 가장 오래된 정례전으로 1981년 덕수궁미술관의 ‘청년 작가’ 전으로 출발했다. 1990년부터 ‘젊은모색’전으로 이름을 바꿔 격년제로 열리다 지난해부터 연례전으로 개최되어 신진 작가 소개의 기회를 늘렸다. 지난 33년 동안 ‘젊은모색’전은 실험정신과 잠재력이 돋보이는 차세대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고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최종 선정된 작가들은 미술관 전체 학예직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신진 작가들을 추천받아 내부 선정위원회의를 거쳐 엄선되

었다. 이들은 현실적인 사건이나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향해 노골적인 일침을 가하기보다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현실을 적절히 혼용하여 '잔혹동화'와 같이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을 갖는다.

김하영(1983-)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가는 현대 과학기술이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한다. 개인성을 상실하고 인공적인 풍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 삶의 허무함을 화려한 색과 단순한 이미지로 도식화한다. 김도희(1979-)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기록과 자각을 통해 현실을 비판한다. 하나의 거대한 구름 풍경처럼 보이는 <야뇨증>은 어린아이의 오줌을 수차례 장지 위에 물들인 작업으로 어린아이의 악몽이 오줌으로 배출되듯이 현실에서 은폐되고 설명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지목한다.

노상호(1986-)는 일상에서 수집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고 거리에 리어카를 개조하여 만든 '페르헨 마차'를 끌고 나가 이 이야기를 비선형적으로 퍼트리는 동시에 드로잉, 페인팅, 퍼포먼스 등의 매체로 확장해 나간다. 조송(1986-)은 짧은 글들을 작성한 후 제목을 붙이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며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일상에서 만날 법한 인물이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심, 욕망, 질투, 상대적 우월감 등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동양의 전통재료인 먹을 이용하여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한편 작가의 엉뚱한 상상력으로 진지함의 무게를 덜어낸다.

윤향로(1986-)는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대변하는 대중문화에 집중하여 이미지들을 조합하고 그 간극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오민(1975-)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 의식, 일상적 패턴 등을 관찰하고 이러한 규칙에서 발생하는 다소 불편한 균형을 주목한다. 권용주(1977-)는 싸구려 건축자재, 공사 폐기물 등과 같이 버려진 부산물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거대한 인공 폭포를 만

든다. <폭포>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 생존하는 방식과 그 흔적이다. 김
응용(1982-)은 영화를 구성하는 오디오, 영상, 컷 등의 요소들을 풀라쥬
하듯 뒤섞어 배치하고 재편집하여 낯섦, 기괴함, 친숙함을 혼재시킨다.

《젊은모색 2014》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일상 속에서 지각되는 사
회의 긴장과 충돌을 해결하려 하거나 직접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보다
일상의 풍경 그대로를 담담하고 감각적으로 도상화 한다. 이번 전시
를 통해 젊은 세대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
시하는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미술에 나타난 젊은 정신과 향후
미술의 가능성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 시대의
조형담론을 예견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시 공간은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작가들의 개별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전시장 초입에는 참여 작가
의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어 작가의 예술세계를 보
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현대미
술관 홈페이지(<http://www.mmc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일반인 전화문의: 02-2188-6000 (국립현대미술관 대표번호)

■ 전시개요

- 제 목: (국문) 젊은모색 2014 / (영문) Young Korean Artists 2014
- 일 시: 2014. 12. 16 ~ 2015. 3. 29
- 장 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2전시실, 중앙홀
- 출품작: 회화, 한국화, 설치, 영상, 애니메이션 등 약 40점
- 주 관: 국립현대미술관

■ 전시 프로그램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일반인, 학생, 시각장애아동 대상 운영
- 어린이용 전시감상가이드 제공 (온.오프라인)

○ 전시해설

- 전시기간(2014. 12. 16.~3. 29.) 중 1일 2회 운영
- . 평일(화-금) 13:00, 15:00 / 주말(토-일) 14:00, 16:00
- 수시 및 단체해설 별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mc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이미지)

- 웹하드 주소: <http://webhard.mmca.go.kr>
- 아이디: mmcapr1
- 암호: 0987
- 상단아이콘 [전용탐색기/웹탐색기/백업] 중 [웹탐색기] 클릭→ [Guest 폴더] → [보도자료]
[젊은모색 2014]

※ 붙임 1. 전시 설명

2. 작가 노트 및 약력

3. 출품작 리스트

【붙임1】 전시 설명

<젊은모색 2014>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적인 정례전인 <젊은모색>전이 올해로 제 18회를 맞이했다. 1981년 <청년 작가>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왔다.

이번 <젊은모색 2014>전에서는 특정 시대적 이념이 사라지고 개인화와 파편화된 사회 안에서 젊은 작가들의 예술이 어떠한 경향을 띄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8명의 작가들은 '상상력'과 '현실'이 적절히 버무려 '잔혹동화'와 같이 우회적으로 포장한다. 즉, 보여지는 겉면은 일상과 대중문화의 이미지, 코드, 매체 등을 이용하고 화려한 색채의 형식을 띠지만, 사회의 부조리와 기이한 모순 현상을 소재로 삼아 현실의 무게를 짊어 나타낸다.

<젊은모색>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적인 정례전으로, 올해로 제 18회를 맞이했다. 본 전시는 1981년 <청년 작가>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왔다.

이번 <젊은모색 2014>전에서는 시대적 이념이 사라진 개인화, 파편화된 오늘날의 배경 안에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예술의 경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8명의 작가들은 그들의 예술을 '상상력'과 '현실'을 적절히 버무려 '잔혹동화'와 같이 우회적으로 포장한다. 즉, 보여지는 겉면은 일상과 대중문화의 이미지, 코드, 매체 등을 이용하고 화려한 색채의 형식을 띠지만, 반면, 내용에 있어 사회의 부조리와 기이한 모순 현상을 소재로 삼아 작품의 기저에 현실의 무게를 짊어 드리운다.

1. 권용주(1977-)

권용주는 싸구려 건축자재, 공사 폐기물 등과 같은 버려진 오브제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거대한 인공 폭포를 중앙홀에 설치한다. <폭포>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의 생존하는 방식과 그 흔적이다. 버려지고 방치된 폐기물들과 싸구려건축자재들은 아슬아슬하게 쌓아져 노동과 생활을 균형을 형상화 미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하고, 이 사이로 인공의 물줄기들이 쏟아짐으로써 다른 의미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폭포> 2014년,
설치, 오브제와 수증펌프를 이용한 인공폭포, 가변크기

2. 김도희(1979-)

김도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 속 인간의 존재론적인 기록과 자각을 통해 현실을 비판한다. 하나의 거대한 구름풍경과 같이 보이는 <야뇨증>은 어린아이의 오줌이 커켜이 쌓인 장치이다. 어린아이들의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는 경험들이 악몽을 빌어 오줌이 배출되듯, 현실에서 은폐되고 설명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지목하며 오줌 얼룩들과 고약한 지린내는 전시장에서 관객들을 대면하며 우리사회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통렬하게 깨닫게 해준다.



<야뇨증> 2014년,
종이, 어린아이의 오줌(동자뇨)
840cmX300cm

3. 김용용(1982-)

김용용은 영화 매체를 구성하는 오디오, 영상, 시간 등의 요소들을 풀라쥬 하듯 뒤섞어 배치하고 편집하여 영상의 매체적 특성을 탐구한다. <텔레파시>는 다큐멘터리의 상투적 소재인 실종자에 대한 2개의 증언을 바탕으로 2개의 영상을 재편집하였다. 그러나 원작 다큐멘터리의 오디오를 배경에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경험이 개인에 따라 차별된 기억으로 남는다는 '이중의 실재'를 지목한다. 정신분열적으로도 보이는 이 작품은 인간의 이중성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



<텔레파시> 2014년,
영상, 2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오디오, 가변크기

4. 김하영(1983-)

김하영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가는 현대 과학 기술이 사회 속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한다. <인간들은 전자식물을 키우길 꿈꾸는가?>의 초점 없이 멍한 눈을 가진 소녀들은 마치 지하철 안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달리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일정부분 인간성과 개인성을 상실하고 인공적인 풍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 삶의 허무함을 화려한 색과 단순한 그림체들로 도식화하고 드래프팅 필



름지를 이용하여 인간화된 사물과, 사물화된 인간의 풍경을 가볍고 허무하게 표현한다. 단순하고 유쾌해 보이는 이 작품은 이미 그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관객들을 비웃는 역설이다.

<인간들은 전자식물을 키우길 꿈꾸는가?> 2014년,
드래프팅 필름에 아크릴, 209 x 305 cm

5. 노상호(1986-)

노상호는 리어카를 개조하여 만든 <메르헨 마차>를 거리에 끌고 나가 일상에서 수집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판타지스러운 허구의 이야기를 비선형적으로 퍼트리고 수집하여 <태어나면 모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라는 메르헨을 제작하였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개인 듯 하지만 현실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는 사회와 인간의 어두운 이면을 재료로 구전으로 통해 전달받은 이야기는 먹지 드로잉, 페인팅, 퍼포먼스 등의 매체로 확장된다. 관람객들은 마치 동굴을 탐험하듯, 어두운 방 안을 오직 손전등의 불빛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게 된다.



<메르헨 마차>2013년,
설치, 스탠, 목재, 200 x 200 x 110 cm



<태어나면 모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 2014년,
캔버스에 먹지드로잉, 수채화, 260 x 540 (x3) cm

6. 오민(1975-)

오민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 의식, 일상적 패턴 등을 관찰하고 이러한 규칙에서 발생하는 다소 불편한 균형을 주목한다. 이 독립적인 세 가지 비디오로 제작된 <마리나, 루카스, 그리고 나>는 개인의 감정이 배제된 채 공연에 집중하는 각기 다른 세 명의 무용가, 연주자, 그리고 그들을 촬영하는 작자의 '생각의 표정'을 영상에 담아, 통제가 가진 형체가 어떠한 형상으로 보여 지는지 고찰한다. 감각적이고



<마리나, 루카스, 그리고 나> 2014년,
영상, 3채널 비디오, 6채널 오디오, 가변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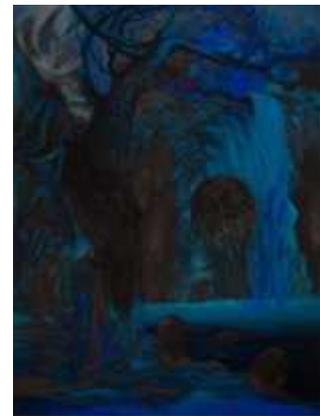
유희적으로 보이지만 작가는 사회의 파워게임, 폭력, 힘겨루기, 통제 등 불편한 주제를 다루며 시간의 결정권을 주지 않기에 외면당하는 매체의 이중적인 특성을 의식적으로 접목시켜 다시 한번 통제의 형태에 접근한다.

7. 윤향로(1986-)

윤향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대변하는 대중문화에 집중하여 이미지들을 조합하고 그 간극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첫인상>은 웹에서 수집한 움직임은 이미지들의 조합 파일인 '움짤'과 영화 '오만과 편견'의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화면 규격, 장르, 인물, 배경 등이 연결성 없이 이어지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책, 월 텍스트와 같은 매체의 확장으로 내러티브의 유효성을 탐구한다.

8. 조송 (1983-)

조송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재들을 이용하여 짧은 글들을 작성 한 후 제목을 붙이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며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허구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간다. 동양의 전통 재료인 먹을 이용하여 다소 어둡고 음울한 느낌의 이미지들은 일상 속 만날 수 있는 인물이나 사회에 만연해있는 이기심, 욕망, 질투, 상대적 우월감 등으로 얼룩진 된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강조하지만, 작가의 영똥한 상상력으로 유희적이고 비틀린 공상이 더해진 페인팅은 진지함의 무게를 미묘하게 줄인다.



<그렇게 온통 꽃이 만발한 것을 발견했다>
2014년,
장지에 먹, 혼합재료, 190 x 132 cm

【붙임2】 작가 노트 및 약력

1. 권용주

1977년 출생의 설치작가

2010년 <부표> 인사미술공간, 2011년 <폭포_생존의 구조> 문래예술공장, 2014년 <연경> 구슬모아당구장에서 개인전을 진행했고, <폭포> 갤러리현대 윈도우, 금천예술공장 오픈 스튜디오 기획전, <본업_생활하는 예술가> 두산 갤러리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나는 우리가 당면한 사회의 특정한 구조 안에서 개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조형적/정서적 부산물이 생산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으며, 생존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흥미롭고도 권태로운 일상적 풍경, 매일 마주하는 생활의 풍경 안에서 관찰이나 수집을 통해 그 풍경을 구성하는 조형적 원리를 배우려 했다. 그렇게 끌어 모은 폐기되거나 방치된 오브제(부산물)들은 쌓이고 묶여서 거대한 설치작업이 되기도 하여, <부표> 의 잡다한 질서 혹은 인공폭포 설치 <폭포_생존의 구조>에서처럼 영성한 구조 위를 쏟아 붓는 물(1분당 2,000리터)의 낙차 에너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학력

2002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학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주요전시

2014 연경,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당구장, 서울, 대한민국

폭포, 갤러리현대 윈도우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모르는 자에 대한 우정, 금천예술공장, 서울, 대한민국

본업-생활하는 예술가, 두산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2013 아트 온 팜, 짐통슨 농장, 태국

아직 모르는 집,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대한민국

On Mobility, 갤러리 팩토리, 서울, 대한민국

2012 플레이타임, 문화역 서울 284, 서울, 대한민국

먼지우주,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대한민국

당신의 머리 위에 그들의 발아래,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 서울, 대한민국

2011 강 같은 평화, 스페이스 99, 서울, 대한민국

발굴의 금지,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대한민국

입춘대대길, 꿀풀, 서울, 대한민국

폭포-생존의 구조, 문래예술공장, 서울, 대한민국

2010 부표, 인사미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부재중,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서교육십 상상의 아카이브 - 120개의 시선, 갤러리 상상마당, 서울, 대한민국
매일매일 오프닝, 갤러리 175, 서울, 대한민국
2009 휘경-사라지는 풍경,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대한민국

2. 김도희

작가 김도희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6년 첫 번째 개인전 <미친나무>에서 오랜 난치병으로 복용 중이던 약물을 끊고 한 달 간 이불 크기의 장지 한 장만 깔거나 덮으며 생활 한 후 그 흔적인 남루한 장지만을 벽에 걸어 전시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예술의 의미와 삶에 관한 실존적 물음을 강렬하고도 집요하게 던져오고 있다. 대표적 전시로 2011년 인사미술공간에서의 <죽은 나무에 물주기>, 2012년<만월의 환영>, 2012년<아르코 언바운드 아카이브>등이 있으며, 2011년 IYAF(차세대예술인력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담담하게 기술 할 수 있는 '생'이 있었다. 열게 흐르는 피 같은 건 없고 모든 구멍에서는 숨이 치열하게 새어나오는 법이다. 구체적 현실(또는 생)을 더 이상 감각하지 않는 불능의 언어가 나를 산송장 치를 지경이면, 감각의 불씨를 최대한 증폭시킨 채 내 안의 공터에 맞불을 놓는다. 상실과 소멸의 공포를 강박적으로 환기시키면서까지 나 자신을 서늘한 부재의 공간 속에 그냥 두는 것은 어떤 실재를 들춰보려는 제어할 수 없는 욕망과, 고독하여 홀가분해 질 때 체험되는 강렬한 현재적 쾌감, 또는 승리감 때문일 것이다.' - 2014년 김도희

학력

2005 홍익대학교 회화과 석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2002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주요전시

2014 IYAF 페스티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서울, 대한민국
2013 한국으로부터의 인사, 루치아노 베네통 컬렉션, 베네치아, 이탈리아
2012 아르코 미디어 아카이브 프로젝트, 아르코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만월의 환영, 대안공간 플레이스 막, 서울, 대한민국
2011 이상한 가역반응, 갤러리 이즈, 서울, 대한민국
죽은 나무에 물주기, 인사미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2010 서교육십 상상의 아카이브-120개의 시선, 상상마당, 서울, 대한민국
지역 네트워크전, 아르코미술관, 서울 / 광주 / 부산, 대한민국
2009 신비-디지털(脫) 미술과 담론, 세줄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코딩 컨버세이션, 스페이스집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수상

- 2012 차세대 예술가 인력육성지원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대한민국
- 2011 인사미술공간 전시공모지원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대한민국
- 2009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대한민국
- 2006 신진작가지원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대한민국

3. 김응용

김응용은 이미 있는 내러티브 속 요소들을 수집해 변형된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가입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재료들(사운드, 컷, 색 시퀀스의 시간, 사물 등)을 끌라쥬 하듯 뒤섞어 배치하고 처음 가져온 틀과는 다른 구성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무언가 유사해서 낯설어 보이거나 혹은 흡사해서 익숙해 보이는 과정으로 작업이 귀결되도록 합니다. 그것이 작업을 보는 동안 여러 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학력

- 2011 제네바미술학교 Contemporary Artistic Practices 석사졸업, 제네바, 스위스
- 2009 제네바미술학교 영화과 학사졸업, 제네바, 스위스

주요 전시

- 2014 19금 퍼포먼스 릴레이 : 이종인, 대안공간 루프, 서울, 대한민국
헬로 : 피부 밑에 숨은 이름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소리샘, CEEAC,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결정 된 우연에 반응하는 에피소드들 : 오호츠크해 고기압, 문래예술공장, 서울, 대한민국
상황 : 두_개의 초록색 정물,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 2013 비디오릴레이 : 커플이야기 외 경리단길 활엽수여, 인사미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 2012 Around nothing and everything : Now watching, 디지털아트스튜디오, 벨파스트, 영국
- 2011 장면들, Espace d'Art Saint-Valentin, 로잔, 스위스
- 2010 Fantômes : Study of needle's eye, Espace Labo, 제네바, 스위스

수상

- 2011 Prix Master Arts Visuels, AHEAD 재단, 제네바, 스위스
- 2009 Prix Arts Visuels, AHEAD 재단, 제네바, 스위스

4. 김하영

주로 폴리에스트르 캔버스과 드래프팅 필름,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김하영 작가는 테크놀로지와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의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고도로 테크놀로지화 된 사회 안에서 일정부분의 인간성과 개인성을 잃고 어떻게 '캐릭터 없는 캐릭터'같이 되어가는 지 관찰하고 그것을 유머러스하고 아이러니하게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통제된, 차갑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논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오브젝트가 된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지 그리고 유약하고 연약한 느낌을 생산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영국, 런던에서 작업 중이며, 2010년 영국 왕립예술원(Royal Academy of Arts)을 졸업하고The School of Arts and Digital Industries, UEL에서Doctor of Fine Art (DFA)로 학위를 마쳤습니다. 영국 왕립예술원에서 수여하는 저우드 대상(Jerwood prize)과 솔로몬 조셉 솔모몬 (the Solomon J Solomon prize), 뒤누아이에 드 세공작 어워드(The Dunoyer de Segonzac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Glenfddich AIR레지던시 프로그램, 뉴욕에서 the Vytlacil AIR 와 독일 Artoll 레지던시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현대 갤러리 윈도우 전시 Virtualium(2013) 과 런던43 인버네스 갤러리 (2011,2014) HaYoung Kim show, 옥스턴 아트 갤러리Eat All You Can (2012) 등 다수의 개인전을 한 바 있으며 홍콩의 아멜리아 조셉스 컨템프로리에서 IRONIC MYTHOLOGIES (2012), 런던의 버몬지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Penumbra (2012), 뉴 갤러리에서 ID PLEASE 전시와 옥스턴 아트 갤러리에서 Pleasure Principle (2012) 그룹전에 참여하였습니다.

학력

- 2014 동런던 대학교 프로페셔널 박사졸업, 런던, 영국
- 2011 런던 왕립예술원 졸업, 런던, 영국
- 2007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서울, 대한민국

주요전시

- 2014 New Paintings, 김하영 개인전, 43 인버네스 갤러리, 런던, 영국
Artoll 레지던시 그룹전, 베드버우-하우, 독일
- 2013 버추얼리움, 갤러리 현대 윈도우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New British 2013 Patch London, 로이드 클럽, 영국
WW 솔로 어워드 그룹쇼, WW 갤러리, 런던, 영국
- 2012 Eat All You Can, 개인전, 옥스턴 갤러리, 런던, 영국
Ironic Mythologies, 아멜리에 존슨 컨템프로리, 홍콩, 중국
ID Please, 뉴 갤러리, 영국
Pleasure Principal, 옥스턴 아트 갤러리, 영국

- Map the Korea - 4482, OXO 타워 영국
- 2011 김하영 개인전, 43 인버네스 갤러리, 런던
프린트메이킹 런던 2011, 클리포드 찬스, 영국
투모로우 2011 한가람 아트 뮤지엄, 예술의 전당, 영국
로얄 아카데미 써머 쇼, 영국
- 2010 그룹쇼, 갤러리아 미셸 아델스, 프랑스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전시, 스코틀랜드
프리미엄즈 로얄 아카데미 인트림 쇼, 영국
- 2009 Mindscape of the 21stCentury, 아담 제임스 아트, 비-탑, 중국
로얄 아카데미 써머 쇼, 영국
로얄 아카데미 전시, 도버 아트 클럽 전시, 영국

수상

- 2014 서울시립미술관 Emerging Artist :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 대한민국
- 2013 WW SOLO Award longlisted, 윌슨윌리엄스 갤러리, 런던, 영국
- 2011 The Dunoyer de Segonzac award, 로얄아카데미, 런던, 영국
Soloman J Soloman Prize, 런던, 영국
Various Small Prizes from Royal Academy, London, UK
- 2010 Royal Academy Jerwood Prize, Major Prize, 로얄아카데미, 런던, 영국
- 2009 The Arts Club drawing Prize, First Prize, 런던, 영국

5. 노상호

메르헨 만들기

나는 삶의 경험이나 타인의 경험 속에서의 고민을 허구의 메르헨(이야기)을 만듦으로써 심화시킨다. 내가 삶 속에서 느낀 경험을 직접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하여 표현한다. 이것은 상징과 이야기구조를 통하여 주제의 전달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진리에 대해 다각도로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직접적인 감성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진리에 관해 객관적이고 다방면으로 탐구하는 방법이 된다.

나는 평소 인터넷이나 잡지, 신문 등을 통해 많은 양의 이미지들을 수집해 둔다. 종종 일상의 어느 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두기도 한다. 그렇게 모은 일상의 장면들은 한 장의 이미지로만 남게 되면서 차츰 원래 현실의 사건들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된다. 그리고 이사진들을 종이에 '먹지'로 덧대고 베낀다. 이 '수집된 이미지'는 나의 '일상의 경험'들과 병치된다. 나는 마차를 끌고 나가거나 평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지어낸다. 수집된 사진들은 현실에서의 수집된 이야기들과 함께 새로운 상상으로 전환된다. 나의 이야기 짓기 과정은 일상의 경험을 참조하며,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재창조된 세계와 내용을 가지게 된다.

이야기는 한 장의 그림에서 시작된다. 먹지로 이미지를 덧대는 동시에 이야기가 지어지고 이것은 다시 다음 그림에서 이어진다. 정해놓은 결론이나 주제는 없으며, 한 장 한 장 그림이 그려지면서 메르헨이 동시에 제작된다. 때문에 이야기는 비선형적이며,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고, 순서가 바뀌어도 무리가 없다.

제작된 메르헨들은 마차를 통해 다시 사람들에게 구전된다. 리어카를 개조하여 만든 작은 '메르헨 마차'를 끌고 다니며 그 속에 앉아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수집된 이야기들에서 재생산된 '나의 메르헨'은 다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변형된다. 나의 이야기는 듣는 이에 의한 개입과 변경의 여지를 열어놓는다. 이를 통해 메르헨은 '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변형되고 전파될 가능성을 가진다.

*메르헨(marchen): 메르헨은 독일어이다. Fairy tale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며, 국내에서는 '동화'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이 번역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화학에서는 메르헨이라는 단어 그대로를 표기하는 편이다. 메르헨은 가족끼리 모여 앉아 가족들을 상대로 주고받은 '집안 속의 이야기' '화롯가의 이야기'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으며 환상과 상상력을 토대로 불특정 시대, 불특정 장소에 처한 불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기본 토대이다. 신화나 전설과 같은 '의도된' 이야기보다는 '민담과 같은 형태로 되어있으며, 인간의 기본진리에 관한 주제가 보통 주를 이룬다.

학력

2013 홍익대학교 판화과 학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주요 전시

2014 목하 진행 중,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나열된 계층의 집, 주차장, 서울 대한민국

2013 마르헨 마차 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소액다کم,

홍대일대, 대한민국 서울

제로사인, 홍익대학교 박물관, 대한민국 서울

2012 프리홈프로젝트 XX 네모난, 프리홈, 대한민국 서울

6. 윤희로

윤희로는 서울에서 태어나 작업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오늘의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비슷한 세대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호기심을 느낀다. 최근에는 쏟아지는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정리하여 현재 상황을, 그리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를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대중매체

와 이를 수집하는 사람, 수집에서 나타나는 기호와 자극들,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정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숫 컷>(2012), <Blasted (Land) scape>(2014)라는 타이틀로 2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오늘의 살롱>(2014), <알아서 조심>(2013), <기울어진 각운들>(2013), <시선의 반격>(2010)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학력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평면조형전공 전문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2009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주요전시

2014 Blasted (Land) scape, 인사미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자립 혹은 침투,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대한민국
2013 알아서 조심, 갤러리 175, 서울, 대한민국
기울어진 각운들, 국제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2012 Short Cuts, 갤러리 175, 서울, 대한민국
Tomorrow 2012,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캐비닛 Vol.2, 일현미술관 을지빌딩, 서울, 대한민국
Bless this space,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2011 Tomorrow 2011,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10 열사흘날 밤,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 gallery, 서울, 대한민국
New vision, 갤러리 소소, 파주, 대한민국
Perspective Strikes Back, L'appartement22, 라바트, 모로코
Hysteria, 대안공간 루프, 서울, 대한민국
언어놀이, 성곡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서교육십 2010-상상의 아카이브, 상상마당, 서울, 대한민국
2009 시선의 반격, 두산아트센터, 서울, 대한민국
Platform in KIMUSA, 전 국군기무사령부 건물, 서울, 대한민국

수상

2014 인사미술공간 전시공모 지원(시각분야 AYAF) 선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대한민국
2011 일현미술관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대한민국

7. 오민

나는 이야기꾼이다. 내가 만드는 이야기들은 주로 정교한 파워게임에 대한 것들이며, 아름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이 공존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대부분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패턴, 의식(ritual), 게임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유희적으로 보이지만 기만적이기도 한 형식을 통해, 폭력, 힘겨루기, 통제 등에 관한 다소 불편한 주제로 관객들을 유혹한다.

과거 피아노 연주를 공부했던 영향으로, 나는 나의 작업물들을 구조(시간의 구조, 공간의 구조, 재료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 구조들은, 마치 연주자가 나선형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연주를 완성해 가듯, 다양한 차원의 반복을 통해서 서서히 발전하고 조각(sculpt) 된다.

나는 주로 비디오를 매체로 사용한다. 비디오는 관객들에게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제에서의 우위를 가지지만, 반면 그 때문에 쉽게 외면당하기도 한다. 컨트롤에 관한 완강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가졌다는 점에서 비디오는 내 이야기를 전달해 줄 최고의 매체가 된다. 한편, 퍼포먼스와 비디오를 접목함으로써,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계획된 것과 즉각적인 것, 가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통합하는 실험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학력

- 2008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석사졸업, 뉴헤이븐, 미국
- 200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학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 199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서울, 대한민국

주요 전시

- 2014 모르는 자에 대한 우정, 금천예술공장, 서울, 대한민국
- 2013 모던 타임스 : 모던 하우스키핑, 아이 필름 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시네마 자우드, 안트베르펜, 벨기에
- 2012 라익스아카데미 오픈, 라익스 아카데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모음곡, 네덜란드 중앙은행 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살롱/마스트리흐트, 팀버파브릭, 마스트리흐트, 네덜란드
KAAP, 라우헨후크 요새, 흐로네칸, 네덜란드
윈터살롱, 판 룬 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2011 라익스아카데미 오픈, 라익스 아카데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사물이 진솔하게 말하고 노래하는 법, 에어퍼트 미술관, 에어퍼트, 독일
/ 오노마토피,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점대점, 아티 옛 아미시티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2010 리버풀 비엔날레 : 미디어 풍경 동쪽 지역, 리버풀, 영국 / 영국문화원,

런던, 영국 / 대안공간 루프, 서울
워드-리스, 엘리자베스 예술 재단 갤러리, 뉴욕, 미국
2009 디자인메이드, 영국문화원, 영국
피드백, 쿠치프리트로스 갤러리, 뉴욕, 미국

수상

2014 삼성문화재단 지원 프랑스 파리국제예술공동체 작가 선정
도머링파운데이션 지원작가 선정,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금천예술공장 거주작가선정, 서울, 대한민국
2012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서울, 대한민국
라익스아카데미 거주작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0 제10회 차세대디자인리더, KIDP, 서울, 대한민국
2009 제9회 차세대디자인리더, KIDP, 서울, 대한민국
뉴욕 아티스트 얼라이언스 거주작가 선정, 뉴욕, 미국
2008 87회 ADC 디자인 어워드 실버큐브, 뉴욕, 미국

8. 조송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인간의 증명'을 최근으로 4회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 기획전에도 참가하며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북경 798 예술구에 있는 갤러리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업의 시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모든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쁨, 슬픔, 환희, 분노, 우울함, 비참함 등 인간은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 또는 본연의 성격을 통해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다스리며 차곡차곡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또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재구성 하여 짧게나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 설명할 수 있는 제목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또 일년이 되고 10년이 되듯이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은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먹'이라는 재료를 통해 표현됩니다. 물감을 바르는 개념이 아닌 종이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먹이라는 재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에 빠져들게 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한 먹물을 물에 얹게 희석하여 장지에 올리는 과정을 약 30회 정도 반복하고, 서서히 스며들어가 는 '먹'이라는 물성을 통해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과정 즉 흐르는 세월의 두께 또는 서서히 깊어져 가는 감정의 잠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인물이나 배경을 그려나가면서 먹

이 마를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폭 위의 그림들이 점점 확장 되면서 하나 둘씩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작가로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갑니다.

학력

2010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 석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2006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 학사졸업, 서울, 대한민국

주요 전시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대한민국

2013 종이의 선율, 베이징 스페이스, 베이징, 중국

Close to the Warm, 포스 갤러리, 베이징, 중국

2012 Beautiful Star, 비욘드 뮤지엄, 서울, 대한민국

인간의 증명, 아트스페이스 에이치, 서울, 대한민국

2010 한국화의 이름으로, 포항 시립 미술관, 포항, 대한민국

첫 번째 계단, 아트스페이스 에이치, 서울, 대한민국

Painting: 지금 회화로 표현되는 것들, 가나 아트 스페이스, 서울,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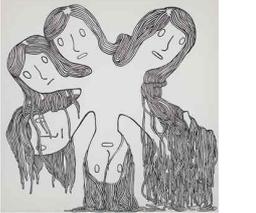
2009 Address Space, DIE Gallery, 서울, 대한민국

Phobism, 경기대학교 호연관 호연갤러리, 수원,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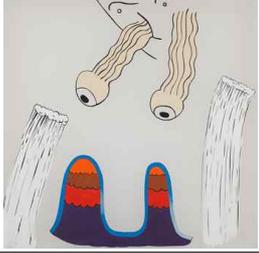
아무도 모른다, 가나아트 스페이스, 서울, 대한민국

【붙임3】 출품작 리스트

	작가명	작품이미지	작품명
1	권용주		폭포 /Waterfall 2014
2	김도희		야뇨증 /Bed-wetting 2014
3			만월의 환영 /Full moon Illusion 2012
4			콘크리트시계 /Concrete clock 2011
5	김용용		텔레파시 /Telepathy 2014
6			하드스킨 /Hard Skin 2014
7	김하영		인간들은 전자식물을 키우길 꿈꾸는가? /Do Humans Dream of Growing Electric Plants? 2014
8			수술대 /Operation Table 2012
9			오려진 것들 /Cut-outs 2012

			
10			증가된 시각 /Augmented Vision 2014
11			Becoming Head 2014
12		 <small><Mob Mentality> Acrylic on polyester canvas 50x50cm 2014</small>	Mob Mentality 2014
13			Athena 2014
14			Sextuplets 2014
15			TR4 2014

16			What You Eat 2012
17			What You Eat 2 2012
18			God Finger 3 2012
19			She has an electronic face II 2012
20			Cybernetic Body 2013
21			Stem of Girls 2012
22			

			Augmented Vision-1 2014
23			Augmented Reality-1 2014
24			No Reasons 2014
25			태어나면 모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 /There's a town where everyone has to close their eyes since they were born 2014
26	노상호	준비중	태어나면 모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 /There's a town where everyone has to close their eyes since they were born 2014
27			메르헨 마차 /Märchen Wagen 2013
28			태어나면 모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변사 /There's a town where everyone has to close their eyes since they

			were born 2014
29	오민		마리나, 루카스, 그리고 나 /Marina, Lukas, and Myself 2014
30			모음곡 1 /Suite 1 2012
31	윤향로	준비중	첫인상 /First Impressions 2014
32			150, 91, 297, 302, 323, 188, 164, 98, 189, 344, 236, 377, 98, 7, 22, 210, 148, 143, 173, 284, 305, 145, 296, 98, 321, 104, 94, 163, 19, 473, 286, 315, 10, 266, 264, 10, 168, 93, 272, 263, 29, 63, 322, 278, 143, 299, 304, 27, 137, 127, 278, 387, 40, 345, 122, 87, 87, 279, 203, 64, 73, 73, 153, 289, 266, 27, 76, 325, 139 (From upper left) 2013

33	조승		<p>그렇게 온통 꽃이 만발한 것을 발견했다 /Discovered that the flowers are in full bloom 2014</p>
34			<p>안개가 끼기 전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 /We can't move until it's foggy 2014</p>
35			<p>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It's dangerous to look at distance vacantly 2011</p>
36			<p>그래 그럼 해줄게 /OK I will do it for you 2014</p>
37			<p>나는 왜 안해주냐 /Why don't you do it for me? 2014</p>

38			<p>한때 인간이 꾸몄었던 정원 /The garden that the human used to decorate 2014</p>
39			<p>어느 늙은 원숭이에 대한 장례식 /The funeral held for an old monkey 2014</p>
40			<p>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vol.1 /I am nothing 2014</p>
41			<p>그럼 난 뭐야 /What am I? 2012</p>
42			<p>초상화 시리즈 /A Portrait Series 2008-2013</p>
43			<p>그냥 믿어 의심치 마라 2012</p>

44			할머니 2011
45			할머니 쌍둥이 언니 2012
46			할머니 애완동물 2012
47			할아버지 2011
48			할아버지 간병인 2012
49			할아버지 초등학교 동창 2012

50			여동생 2011
51			이웃 사촌 vol.1 2011
52			이웃 사촌 vol.2 2011
53		준비중	옆집 할머니 귀신 2012
54		준비중	옆집 군인 아저씨 2012
55			위대한 성악가 2011